

## 2. 영유아발달 상담사례

2. 영유아발달 상담사례	언어발달	두 단어 밖에 말하지 못해요 아이의 언어지연과 강박증, 어떻게 해야 할까요?	32p 34p
	사회성발달	자꾸 모르는 사람에게 가는 이유가 뭘까요? 낯가림이 너무 심한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6p 37p
	정서발달	원래 잘 하던 것을 갑자기 무서워해요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극도로 불안해해요	38p 40p
	신체발달	스스로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나지 않는 구강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42p 43p
	발달장애	발달장애가 맞을까요?	44p



언어발달

## 두 단어 밖에 말하지 못해요

### 상담내용

27개월 남아입니다. 말귀는 알아듣는데 말을 안합니다. 엄마, 아빠 두 단어만 할 줄 알아요. 어린이집은 올해 다니기 시작했고, 엄마, 아빠, 아이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으며, 주 양육자는 엄마입니다. 눈 맞춤이 되지 않거나,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또래에 비해 말만 느린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낯을 가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것도 연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 '기저귀 가져와', '양말 가져와' 이런 말을 들으면 다 알아듣고 해당 단어에 상응하는 물건을 잘 찾아 올 수 있습니다.
- ☑ 엄마, 아빠 외에는 ' 짹짹', '멍멍' 같은 의성어를 흉내 낼 줄 압니다.
- ☑ 의사표현은 주로 '이이이~'와 같은 소리로 표현합니다.

### 답변내용

보편적으로 표현언어는 이해언어보다 느리게 발달합니다. 그리고 이해·표현언어 발달 이전에 타인과 정서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먼저 발달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정서적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표현언어보다 이해언어가 더 많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래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달하고 있는지는 적어주신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36개월까지 표현언어의 발달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아이가 타인에게 관심이 있고, 함께 무엇을 하려는 다양한 시도(몸짓, 표정 등)를 할 수 있으며, 명확한 발음으로 단어나 문장을 구사하지는 못하더라도 억양 등을 흉내 내면서 말을 하려는 모습(엄마~ 이아이어어어~)을 보이면 조금 지켜보셔도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편적인 표현 언어 발달(24개월에는 두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 표현이 가능) 기준에 비하면 다소 늦어 보이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적 노출을 통해 발달을 촉진시켜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이야기 나누는 상황에 많이 노출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대화에서 억양, 리듬, 단어, 표정을 다양하게 보거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험이 쌓여야 발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영상 속 대화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이와는 질문-대답의 형식을 쓰기 보단 아이의 행동에 담긴 의미를 말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이이~'라고 하면, 불편한 것을 바로 해결해주기 보다는, 'OO이는 이게 싫어요?', '아니야, 라고 하는거야'는 식으로 아이가 해야 하는 말을 처음에 먼저 들려주어야 합니다.

위 내용이 가장 핵심이지만 이에 덧붙여 발화에 도움이 되는 신체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신체를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 것이 말소리를 만들어 내는 데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네, 미끄럼틀, 점핑 등의 놀이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낯선 대상을 경계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경계하면서 부모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해야 할 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주셔서 아이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린이집을 다니면 활동을 좀 더 하게 되고, 언어 자극에 노출되는 시간도 많아지기 때문에, 언어발달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래에 비해 언어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상대 아동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더욱 거친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 일상에서 즐거움을 많이 느낄 수 있게 해주면서 언어발달을 촉진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 자꾸 모르는 사람에게 가는 이유가 뭘까요?

### 상담내용

27개월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는 놀이터, 키즈카페 같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저를 찾지 않고, 다른 성인의 등에 가서 매달리거나, 손을 잡아달라거나 하는 행동을 합니다. 거부당할 경우 우는 시늉을 하거나 진짜 울 때도 있어 곤란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 주로 아이엄마들한테 유독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와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아이들은 첫 돌이 지나 혼자 걸을 수 있게 되면서 사회·정서적으로 자신감이 생기고, 30개월경에는 호기심도 많아져 그간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자율성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떼를 피우고 고집도 부리는데, 이를 '개별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개별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이가 한 인간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발달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사람이 군집되어 있는 곳에 가면 가지고 있는 기질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활발한 아이들은 신이 나서 달려도 보고,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 쳐다보거나 아는 체하기도 합니다. 반면 소심한 아이들은 주춤거리면서 엄마의 얼굴표정을 살피고 엄마가 웃으며 괜찮아하는 표정을 지어주면 그것을 참고해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아이들도 있지요.

부모들은 아이를 부르면 아이가 반응해주길 원하지만, 아이들은 부모가 부르는 소리에 항상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느라 대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아이 엄마에게 다가가 무엇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실례가 될 정도로 아이가 몸을 만지거나 보챌다면 그땐 재빨리 아이에게 다가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하고 알려주고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 아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호기심이 많고, 놀이 활동이 증가하지만 아직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하고, 조절 능력도 부족합니다. 또한 어휘수가 급격히 증가 하지만 언어적 표현이나 의사소통 능력은 매우 부족합니다. 집에서 엄마가 잘 안놀아줘서 그럴 수 있지만, 반대로 잘 놀아줘서 다른 아이 부모님에게도 그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과 어울리는 사회적 경험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시기 부터는 또래들과 집 안팎에서 자주 어울리기 때문에 또래와 친해지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하고, 낯선 사람에게 분별없이 행동하거나, 낯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 낯가림이 너무 심한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상담내용

곧, 두 돌을 앞두고 있는 여아의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돌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어디든 항상 놀러 다니며 사람을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낯선 공간에 적응하는 시간이 다소 필요한 편이며,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처음 본 사람들이 아이에게 말을 걸면 겁을 먹고 안아달라고 하거나 엄청 울면서 안기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또한 또래관계에서도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친구가 떠나면 아쉬워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주변에서는 동생을 낳으면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법을 배운다고 하던데, 낯가림이 심한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내용

두 돌이면 기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성향의 아이이므로, 낯선 사람이 다가올 때와 같이 갑작스러운 상황이 주어질 때 또는 친구에게 다가가고 싶을 때 긴장·불안을 보이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인지적으로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 증가하며 자연스럽게 불안을 다루는 능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성향으로 이해하시고 아이의 속도에 맞추어 서서히 경험을 쌓아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질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기질적 성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을 문제시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은 도리어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아이', '친구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아이'라는 부정적인 자존감을 키울 수 있고,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OO이는 행동하기보다 조심성이 있어 더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아이야"와 같이 아이의 기질의 단점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려고 노력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아이가 세상을 배우고 접하면서 느끼는 불안한 마음을 이해하고, 아이의 속도에 맞추어 잘 다루어 주어야 합니다. 기질에 대해 수용 받은 아이는 자신의 기질을 잘 통합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잘 적응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처음 본 사람이 갑작스럽게 다가올 때 울면서 뛰어오는 불안한 아이의 마음, 친구와 놀고 싶었지만 긴장되고 불안해서 다가가지 못했던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용기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엄마와 함께 다가가 보거나 서서히 경험을 늘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 원래 잘 하던 것을 갑자기 무서워해요

### 상담내용

40개월, 28개월 형제아이를 기르고 있는 부모입니다. 그 중 첫째 아이에 대한 불안증세가 고민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이가 기질이 예민하고 섬세하다고 느낍니다. 작년까지 불안증세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 한시름 걱정을 놓았는데, 최근 들어 갑자기 불안증세가 커졌습니다. 최근 소방누수로 화재경보가 오작동으로 울려 아빠와 함께 대피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심해진 것 같습니다. 아래는 최근에 겪은 심한 불안증상입니다.

1. 저녁시간 아파트 방송 소리가 나올까 불안한 마음에 밥을 숨어서 먹습니다. 식탁에서 가족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자꾸 식탁 밑으로 숨고 화장실이 가고 싶다고 거짓말을 하며 식사시간을 회피합니다. 식탁 밑에 테이블을 따로 놔주니 그 밑에서 밥을 먹으며 '엄마 마음이 편해졌어, 고마워'라고 표현합니다.

2. 예전엔 미용실에서 머리를 곧 잘 자르곤 했는데, 최근에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힘을 주어 긴장하고 심하게 울었습니다. 집에 와서 물어보니, 미용실의 여러 가지 도구들과 바리깡 소리가 무서웠다고 이야기합니다.

3. 샤워기도 원래 무서워했지만 이제 적응을 하나 싶었는데, 다시 무서워하기 시작하여 이젠 틀지도 못하게 합니다. 너무 경기를 일으키고 있어서 세면대에서 씻기고 있습니다.

추가로 놀이를 할 때에도 자기생각대로 잘 되지 않으면 좀 심하게 짜증을 내며 읊니다. 괜찮다고 하지만 그 횡수랑 정도가 좀 지나친 것 같아서 완벽주의 성향인가도 걱정이 됩니다. '자기는 못하는 사람'이라고 단정을 짓고 자책하는 말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내용

아이가 불안해하는 태도를 보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이해하고 있고, 든든하게 상황을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당황하거나 힘들어하고, 짜증을 낸다면 아이의 불안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아, 네가 이런 상황을 무서워하지? 그래, 그럼 하던 대로 식탁 밑에 테이블에서 먹을지, 그래도 조금 용기를 내면서 식탁에서 먹을지 네가 정해봐'라면서 편안한 태도로 이야기해주세요. 선택권이 아이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씻는 상황에서도 샤워기로 씻을지, 세면대에서 씻을지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해보세요. 미용실에 갈 경우도 이를 응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용실에 도착하고, 아이에게 '누구 다음으로 머리를 자를지 정해보자'라는 식으로 선택하게 할 수 있어요.(이것은 예시이므로,

좀 더 다양한 옵션이 있다면 다른 옵션을 제공해도 됩니다.) 하지만 씻을지 씻지 않을지를 묻는 다거나, 머리를 자를 것인지, 자르지 않을 것인지 묻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씻을까?'와 같은 질문은 안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이에게 통제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통제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통제감은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과 외부에 의해 자신이 통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만 2세부터 아이들은 통제감을 발달시키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에 통제감 획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이는 외부 환경이 두렵다고 여기게 되고, 이 때문에 불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양육사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없어 행동의 원인을 알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가까운 상담 센터에 내방해서 아이의 정서 발달을 위한 놀이치료와 부모님이 아이의 발달을 이해하고 어떻게 일상에서 양육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양육 상담을 병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서발달

##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극도로 불안해해요

### 상담내용

이제 곧 10개월을 앞 둔 남자 아이의 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는 엄마와 조금이라도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불안증세가 나타납니다.

엄마가 보이는 곳에서는 혼자서도 잘 놀다가, 엄마가 시야에서 사라지면(부엌이나 화장실에 가면) 울면서 엄마를 찾아옵니다. 또한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방에서 나와 불일을 보면 30분~1시간 간격으로 깨서 엄마를 찾으려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이만 혼자 시택으로 보내 하루종일 놀다 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아이를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택에 가면 엄마를 찾지 않고 잘 논다고 하는데,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요?

### 답변내용

애착은 아이와 양육자 사이에 형성되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으로서 가장 중요한 형태의 사회적 발달입니다. 생후 초기에는 낯선 사람과 있거나 혼자 남겨져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만 생후 6주부터 8개월경에는 애착이 형성되면서 친숙한 사람과 낯선 사람에게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18개월경까지 친숙해진 주양육자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며, 애착 대상이 떠나면 분리불안을 나타내고, 주양육자가 보이지 않으면 찾고 따라다니며, 미소짓고 우는 등 애착 행동을 보입니다. 2세 말경이 되면 애착 대상인 어머니와 떨어져 있어도 어머니가 언제 다시 돌아올지 예측할 수 있어서 분리불안이 줄어들고, 언어가 발달하면서 사회적 관계도 발달하기 때문에 아이는 양육자와 협상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의 행동을 수정하려고도 합니다.

10개월경의 아이라면 애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사물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는 존재한다고 인지할 수 있는 '대상영속성' 개념이 아직 발달하지 않아서 분리불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애착을 형성하려면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민감하고 온정적인 양육태도가 중요합니다. 민감성이란 아이가 요구할 때 빠르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습관적으로 울거나 떼를 피우는 경우라면 한동안은 울게 내버려 두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또한 엄마가 아이와 잠시 떨어져야 하거나 집안일을 하려고 주방에 갈 땐, 그 이유를 아이에게 말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엄마가 oo하고 다시 올게' 등의 표현을 해주면 아이는 이해하는 능력이 먼저 발달하기 때문에 엄마의 행동을 예측하고 보채는 행동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아이와 함께 하루종일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이러한 행동은 아이의 자율성이나 독립심 발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잠깐씩 떨어져 지내는 것은 나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아이를 시택에 혼자만 보내는 것 보단 가끔 함께 가기도 해서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관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아이와 떨어져 있을 때 아이가 불안해한다면 가끔 전화로 목소리를 들려주고 확인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10개월경이면 아직 수면주기가 안정되지 않아 자다 자주 깨서 우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자다 깨서 울 때는 잠들 때까지 토닥거리며 달래주는 것이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이를 반복하며 아이는 안정된 수면주기를 찾게 됩니다.





## 발달장애가 맞을까요?

### 상담내용

우리 아이가 19개월이 되었을 때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호명반응이 좋지 못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유명한 교수님과 센터를 찾아가 진단을 받았으나, 눈 맞춤과 사회적 반응이 좋아 자폐로 보기엔 어렵다고 진단받았습니다. 하지만 자폐아동의 특징이 우리 아이에게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 불안하기만 합니다. 주로 관찰되어지는 특징은 호명반응이 약하고, 상동행동이 자주 관찰되어집니다. 또한 가르키기 행동이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정상 발달 수준의 아이들에게서도 발생 할 수 있는 행동일까요?

### 답변내용

자폐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것과 별개로, 20개월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 상호작용입니다. 설령 이 시기에 자폐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정서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개입을 아주 많이 해야 합니다. 먼 곳을 가거나 특별한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닌, 자연 속에서 아이와 부모가 다른 방해물 없이 마주하면서 함께 주고받는 놀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롯이 아이와 함께 하는 놀이에만 온 에너지를 몰두해야 합니다. 같이 걷고, 뛰고, 쫓아가기도 하고, 부모가 도와줘서 나뭇잎도 만져보고, 큰 물건 뒤에 숨었다가 나타나서 만나보기도 하는 등의 놀이를 하면서 아이의 여러 가지 행동에 아주 크게 반응해주세요.

#### » 호명반응이 약한 것 같아요.

- 아이가 좋아할만한 것으로 관심을 끌려는 시도를 해보고, 목소리의 크기, 톤, 표정의 변화를 주면서 불러보아도 반응이 없는지를 점검해보세요. 아이가 부모의 표정을 보면서 비슷하게 표정을 지을 수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 » 상동행동 or 반복놀이?

- 이 시기(19개월)의 아이들은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움직이며 '속달감'을 느끼기 위해 반복 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보다 즐거운 상황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반복 놀이를 할 때, 개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놀이를 확장시켜 보세요.

#### » 가리키기?

- 가리키기는 12~24개월 사이에 나타납니다. 시간적 여유를 가져보세요. 아이와 함께 주고받는 놀이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면 됩니다. 부모가 먼저 가리키기를 해서 아이의 시선이 이동하는지 살펴보고, 물건을 숨기고 찾는 놀이도 해보세요. 이런 놀이를 하다보면 가리키기가 되고, 나아가 제 3의 물체에 함께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도 발달하게 됩니다.

3개월 정도 집중해서 1:1 놀이를 해주면서 변화를 살펴보세요. '사회적 상호작용'이 얼마나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24개월 이전에는 비언어적 상호작용이 보다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몸으로, 표정으로, 목소리 톤으로 아이와 다양한 감정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